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은혜를 주시는 근거

(딤후 2:10-13)

The Reliable Source of Grace that God Gives

(Tim. 2:10-13)

본문 11, 13절에는 '미쁘다' 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과 은혜의 근거는 미쁘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사상이요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이며 핵심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word, "trustworthy" in the text repeatedly appears three times. It means true and sincere. The reliable source of salvation and grace only belongs to God. God's absolute sovereignty is the root and core of reformatory theology.

1. 죄 사함의 근거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애매모호한 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죄들이 있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죄와 뒤굴며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1. A reliable source of forgiveness

All of us have very specific and detailed sins. The wages of sin is death. We don't live our life by rolling in sin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God achieved righteousness to forgive all our sins,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God's covenant is trustworthy in order to forgive sins. It gives salvation to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s precious blood and admits their indebted to him. It is for us to confess our sin by ourselves.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용서하실 의, righteousness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힘입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미쁘십니다.

2. A reliant source of the righteou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Psalms 23:3).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근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The reason why God refreshes our soul and guides us along the right path is for his name's sake. This is the Gospel.

이사야 선지자는 흠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시길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은혜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사 43:7).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치유와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그분의 영광이라는 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3. A reliable source of grace

The reason why Jesus bore his cross is not that we have done something well. It is not also for us because of showing our possibility. He decided to save us. Though we have not given any contribution or goodness to God, he bore his cross to save us.

3.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선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My beloved Chris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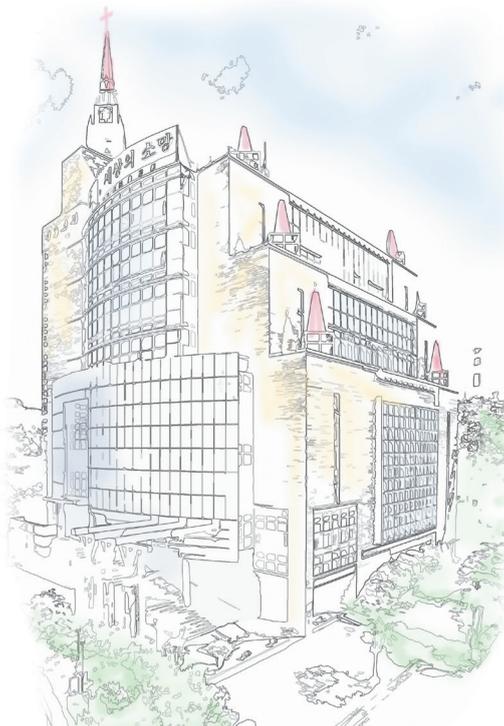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While Jesus bore his cross, we did not do anything. We still commit sins. Nevertheless, Jesus bore his cross. By looking at God who is trustworthy,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glory and praise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범위: 히11장, 롬8장, 요일4장

예선: 오늘 교육부서별로 / 본선: 10월 14일(금) 오후 7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하고 있다. 2016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요한일서 4장이다. 이상 세 장 중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송해야 한다. 암송시간은 히 11장(5분), 롬 8장(4분), 요일 4장(3분) 총 12분으로 제한한다.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오늘 실시된다. 각 부서별 예선을 통해 부서별로 5명 이내로 선발하여 다음 주일(10월 9일)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서기 김광태 집사에게, 일반 장년 성도들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장년부는 예선이 없으므로 10월 9일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선 당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본선은 10월 14일(금) 오후 7시 6층에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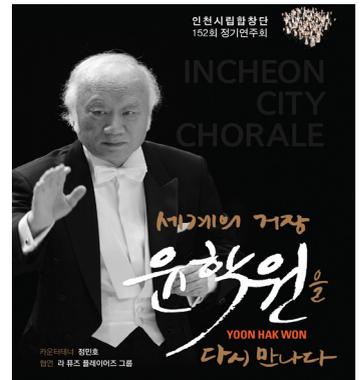
주일에배 시 검정색 가운 착용 10월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10월 첫 주일부터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예배 담당 목사와 장로는 검정색 가운을 착용한다.

박정선 은퇴장로 작곡 "인천 MASS" 공연

10월 20일(목) 오후 7:3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박정선 은퇴장로가 작곡한 "인천 MASS"가 인천 시립합창단 152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거장 율학원을 다시 만나다!』에서 연주된다.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금요기도회

현재 우리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박노철 담임목사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며 온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필 것이다.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이중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방향을 제시한다. 세상 문화는 구원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생각은 이 세상 문화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우리는 매사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성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까?

1. 기독교적 생각과 세속적 생각

기독교적 생각이란 그리스도인의 주제를 가지고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종교적 주제도 세속적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세속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는 유비쿼터스(Ubiqutous, 무소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부터 생각해야 하는가? 세속주의는 지금 여기(now and here)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교리가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하시다. 초자연주의란 자연을 넘어 위를 의미한다. 우주는 거기에 있거나 있었고, 또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뒤에 계신다. 우주 이전에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1원인 자존자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이 모든 것의 기초다.

3. 그는 거기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분은 자연, 역사, 특히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신뢰한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신앙이다.

4. 영적 고갈

고전 15:26에서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보아야 한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성공과 쾌락이 우리가 가진 보물보다 큰 것은 아니다. 성공과 쾌락이 구원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5.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1989년 동유럽의 정치적 변화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므로 물질적 풍요는 구가했으나 영적으로는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타락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사회주의가 루마니아에서 붕괴되기 전 사과나무에서 배가 먼저 달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불과 한 주일이 지나서 라사로 토크스라는 목사님 한 분에 의해 루마니아의 혁명이 이루어졌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마침내 루마니아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히 11:35) 그들은 죽음도 불사 했다.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라!

(다음 주 계속)



하나님이 세우신 호산나대학!

최연주 학생(호산나대학)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2학기를 시작하며 드린 개강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게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도 모른 채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풍익홈(아동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곳에서 장애 진단(지적3급)도 받았습니다. 시설생활을 하며, 엄마도 그림고, 얼굴도 기억 없는 엄마가 밍고 원망스러워서 늘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학교생활은 언제나 외롭고, 친구들의 장애, 고아라는 놀림과 폭력으로 저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설선생님의 추천으로 호산나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며, 저는 달라졌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 예배 드리고, 수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또 엄마 같은 교수님들과 부학장님은 열심히 배워서 취업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도 가라고 늘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서비스학과와 뷰티케어학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미용보조까지 다양한 직업기능을 배우고 실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은 장애가 있는 경우 만 24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하기에,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취업할 수 있



다는 희망이 생겼으며,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독립이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학비가 부담이 됩니다. 매번 방학에는 학비를 벌기위해 식당에서 하루 10시간씩 설거지와 서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등록금 마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교회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조금 부족했던 비용도 하나 여전도회에서 주신 30만원의 장학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시설 선생님과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호산나대학...

제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호산나대학을 위해 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교회와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울교회와 호산나대학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삶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부학장님, 서울교회 모든 분들께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B.M.W.운동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 2일(주) 섬김의 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한다. 6일(목)-7일(금)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의 통일실천모금을 위한 교회지도자 모임에서 개회설교를 한다.

■ 연주회 : 백경화 권사 (4교구,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 10월 13일(목) 당진문예의 전당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교회에서 오후 4시 버스출발 예정, * 문의 : 서경학 집사 010-3715-0182)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 (10.2)
 비베티 전도회 (10.9)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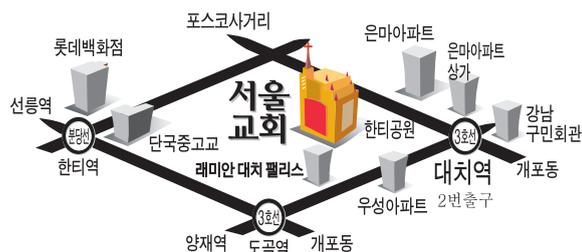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1. 10월 정기당회(10월 5일)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2.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